

유준상 “경이로운 소문, 빨리 또 만나 작업하고 싶어”

‘경소문’ 최강 괴력 카운터 ‘가모탁’ 역

“가족도 응원... 둘째 아들, 질문도 많아”

“촬영하면서 시즌2 했으면 좋겠다 얘기”

“스태프, 배우들과 돈독함이 유독 컸던 작품이라 시원한 감정보다는 빨리 또 만나서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배우 유준상은 OCN 주말극 ‘경이로운 소문’ 종영 기념 26일 뉴시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작품을 정말 열심히 촬영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든다”고 애정 가득한 종영 소감을 전했다.

지난 24일 종영한 ‘경이로운 소문’은 악귀 사냥꾼 ‘카운터’들이 국수집 직원으로 위장해 지상의 악귀들을 물리치는 통쾌하고 답내나는 악귀타파 히어로물이다. 최종회 11.0%(닐슨코리아, 전국)로 OCN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카운터 최강의 괴력 보유자 ‘가모탁’으로 분한 유준상은 액션부터 섬세한 눈물 연기까지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이며 호평받았다. 특히 액션신을 위해 체지방 3% 나비 등근육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

그는 “처음에 감독이 하셨던 말씀이 ‘서른 아홉 살 배역인데 할 수 있죠?’였다.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다”며 “왕(王)자도 만드실 수 있죠?”라는 한 마디에 몸 만들기에 집중했다”고 근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원작 웹툰의 ‘가모탁’과 자신의 이미지가 닮았기 때문에 결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이미지를 찾으려 노력했다.

“몸을 만들 때에도 그냥 근육을 키운다기 보다는 기존에 제가 해오던 필라테스, 복싱,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

경험을 살려서 유연성 있는 저만의 가모탁을 만들고자 했다.”

곱슬머리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 “원래 웹툰에서의 가모탁은 노란 머리이다보니 처음에는 가발도 만들어서 직접 써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러 시도 끝에 현재 모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결정하게 됐다.”

액션신이 많았지만 ‘30대 후반’ 역할이다보니 현장에서 피와 아파다고 못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더 잘 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겨서 이번 작품에서는 고난이도 훈련 많이 했다”며 “몸이 다치면 안 되니까 파쿠르 훈련부터 시작해 다양한 액션, 복싱 연습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실 액션 연기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많이 다치고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회복력이 빨라서 금방 괜찮아졌다.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서 그런가, 정말 액션신에 있어서는 특별히 힘든 부분이 없었다.”

기억에 남는 명장면으로는 2부 체육관 신을 꼽았다. 그는 “소문이와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아픔은 공유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던 장면 있었는데 연습할 때는 대사를 조그맣게 치다가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크게 소리치려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아픔이라는 거는 너희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자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가모탁의 대사들 중 좋은 게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다.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해준 장면이 14부에서 조태린과의 결투신”이라며 “살살 맥여야

해, 죽지 않을 만큼 죽이는 게 내 신조’, ‘이 갑작은 아픔 좀 더 길게 가져다’”이라고 꼽았다.

“사실 이 대사들은 원래 대본에는 없었는데 웹툰에 있던 거라 개인적으로 꼭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감독과 상의해서 만든 장면이다.”

배우들과의 호흡을 말 그래도 ‘환상적’이었다.

그는 “조병규와의 호흡은 미리 짜여지지 않은 애드리브 장면들에서 유독 잘 드러났다”며 “사전에 이야기되지 않은 액션들도 마치 미리 맞춘 것처럼 잘 나왔다”고 했다.

“마지막 회차에서도 짜여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호흡들이 많이 담겼다. 특히 록 나왔다. 실제 같이 연기하면서 아빠와 아들 같으면서도 또 친구같은 좋은 케미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김세정에 대해서는 “현실 오누이같으면서 부녀같은 케미를 잘 만들어줬다”며 “하나와 모탁이는 티키타카가 오가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정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 또 잘 살려줘서 최상의 컵비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염혜란의 경우 “우리 카운터들에게 있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실제로도 제가 많이 믿고 의지했다”고 치켜세웠다.

“현장에서 배우들과 함께 학구적으로 연기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건 혜란 씨의 역할이 컸다. 더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몰아서 수없이 고민하고 토론했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데. 모든 카운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데 혜란씨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안석환에 대해서는 “최장물이라는 캐릭터에 딱 맞는 포스와 더불어 모든 요소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말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고 극찬했다.

“개인적으로 연기하면서 모탁이가 최장물 영감을 따라하고 싶어하지 않으나 하는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

다. 워낙 맛있는 인물이다 보니 성대 모사도 하고 장난도 치고 애드리브를 많이 했는데 다 잘려서 조금 아쉬웠다.”

연인이자 파트너 최윤영과는 ‘실제 이런 커플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는 “‘정영’과의 장면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잘 살리기 위해 더 노력했다”며 “최윤영은 정말 호흡이 좋았던 모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아내 흥은희를 비롯해 가족의 반응도 남달랐다. “가족들도 정말 재미있게 보았다. 계속 본방사수 하면서 많이 응원해줬다.”

특히 “작은 아이는 그동안 제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 궁금해했다”며 “아이와 스무고개 식으로 답은 알려주지 않고 맞춰보게 하면서 대화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실제 ‘가모탁’과 ‘유준상’의 닮은 점을 묻자 “가모탁은 끝까지 자기 사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며 “겉모습과 달리 사실 순수하고 인간미 넘친다는 점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차이점은 가모탁은 싸움을 잘한다. 저는 아예 안 싸운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시즌2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그는 “촬영하면서부터 시즌2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촬영 일정이나 편성 시기는 들은 게 없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즌2에서는 더 강렬하고 시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 악귀들도 더 많이 잡고, 그러기 위해선 모탁도 열심히 훈련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연마해야겠다. 시즌1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경이로운 소문’은 정말 특별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화 ‘스프링싱’을 찍으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나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들어온 작품”이라며 “그래서 더 특별하게 와 닿았다”고 했다.

“‘경이로운 소문’을 통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다.”

1995년 데뷔해 20년 넘게 배우 생활을 해왔다. 그간 힘들었던 때도 많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노력해 왔다.

“한계는 매번 느끼지만 한계라고만 생각하면 그걸 이겨낼 수 없다. 극복 방법은 결국 연습밖에 없는 것 같다. 제게 필요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채워내기 위해 매일 연습하고 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이 예고돼 있다.

“일단 2월 초 ‘그날들’ 뮤지컬 공연을 할 예정이다. 또 지금 음악 작업도 계속하면서 다음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 영화 역시 다음 작품에 대한 준비는 계속 하고 있고, 맡았었던 ‘스프링싱’은 아마 4월 정도 개봉할 것 같다. 많이 기대해 달라.”

경찰 “아이언, 타살 정황 없다”...부검 없이 종결할 듯

타살 가능성↓...부검 없이 종결될 듯

추락에 의한 사망...극단 선택 가능성

병원 옮겼으나 숨져...28일 발인 예정



경찰이 힙합가수 아이언(29·본명 정현철)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정씨 변사사건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신 부검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씨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전해졌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지점이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해 사건을 종

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씨는 전날 오전 10시25분께 중구 신당동 한 아파트 인근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 숨졌다.

정씨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8일 이뤄지며,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정씨는 2014년 웹툰 서버이벌 프로그래프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하면서 힙합가수로 활동했다. 생전 그는 대마초 흡연, 전 여자친구 명예훼손 등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특수상해 혐의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7시께 도구를 이용해 타인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상담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스윙스, 장기기증 서약...“좋은 것,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래퍼 스윙스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

스윙스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혹시나 일찍 가면 꼭 필요한 분은 잘 써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게재했다.

운전면허증 하단에는 ‘장기·조직기

증’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그냥 조금이라도 좋은 것 진짜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사진 2015년도까’라는 해시태그를 붙이기도 했다.

한편 스윙스는 지난해 12월 종영한 웹툰 래퍼 서버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에서 4위를 차지했다. ‘쇼미더

니’ 시즌 3, 7, 8의 프로듀서로서 경연자를 평가한 그가 이번에 경연자로 출연한 도전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달 초에는 코로나19 시대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의 일부 영업 허용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악뮤, YG와 5년 재계약 체결...“신뢰관계 다시 확인”

“YG 떠날 생각 단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

남매 듀오 ‘악뮤(AKMU)’ 이찬혁·이수현이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6일 “악뮤” 이찬혁·이수현이 7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 5년의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찬혁은 “솔직히 YG 만큼 소속 가수들을 먼저 위해주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7년간 단 한 번도 작은 마찰이나 의견 대립 없이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방향으로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어린 우리들을 잘 이끌어준 회사”라며 신뢰를 드러냈다.

이수현도 “우리는 은퇴를 하면 됐지 YG를 떠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고 재계약 이유를 밝혔다.

했다.

악뮤는 대중적 인기뿐만 아니라 음악적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는 남매 듀오다. 지난 2012년 SBS ‘K팝스타’ 시즌2 출연을 통해 ‘악동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주목 받은 악뮤는 2014년 YG에서 정식 데뷔했다.

이후 이들은 YG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 속에 천부적인 작사·작곡 능력을 발휘하며 국내 최강 음원 강자로 자리잡았다. 지난 7년간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켜왔기에 이들의 행보는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YG와 악뮤의 이번 재계약 이 눈에 띄는 점은 가수들의 경우 7

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7년 징크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팀이 해체되거나 다른 기획사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할 경우 보통 2년 정도의 단기 계약으로 계약 기간의 부담감을 줄이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악뮤는 5년이라는 장기적인 재계약을 체결했다.

YG 측은 “악뮤는 아직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지만 생각이 깊고 굉장히 어른스러운 면이 있다. 장기 재계약 소식에 YG 모든 임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서로의 신뢰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YG는 앞으로 악뮤를 위한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아티스트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승리호’ 송중기, 시나리오 보기도 전 출연 결정한 이유

조성희 감독과 8년만에 재회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를 통해 ‘늑대소년’ 이후 조성희 감독과 8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춘 송중기가 감독의 유니크한 상상력과 세계관을 추어올리며 신뢰를 드러냈다.

‘승리호’는 2009년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 최초 우주 SF영화다. 우주쓰레기 청소소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토시를 발견한 후 위험한 거래에 뛰어드는 이야기로 그려진다.

26일 넷플릭스에 ‘승리호’는 8년 전 송중기와 조성희 감독의 첫 만남인

‘늑대소년’ 작업 당시 이미 조성희 감독이 구상 중인 아이템이었다.

송중기는 “‘늑대소년’ 촬영 당시 조성희 감독에게서 ‘승리호’의 줄거리를 듣고, 조성희 감독님 스타일의 따뜻하고 유쾌한 한국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감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야기를 듣자마자 ‘승리호’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떠올렸다.

이어 “시나리오를 보기 전부터 출연을 결정했을 만큼 진심으로 감독님을 믿었다. 무조건 하고 싶었다. 다른 누구에게도 태호(송중기 분)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